


1) 인도네시아 국가 개요

<국가개요>

구 분	내 용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km2 (한반도의 약 9배)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연평균 기온은 25~28℃(자카르타는 32~33℃), 습도는 73~87%
인 구	2억 6,416만 명 (2018, IMF)
주요도시	자와섬: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수마트라섬: 메단, 팔렘방, 빠당 칼리만탄: 뽀띠아낙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발리섬: 덴빠사르
민 족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 어	인도네시아어(공용어), 자바어 등 600여 지방어
종 교	이슬람(87%), 개신교(7%), 천주교(3%), 힌두교(2%), 불교(1%)
정부 형태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위치도	

출처 : National Online Project

2) 건설시장 동향

- ◆ 아세안(ASEAN)내 최대 경제규모(1조 1,089억불)와 인구(2.7억명)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경제가 8.3%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
- ◆ 2019년까지 매년 5% 전후의 빠른 경제성장률이 지속 되면서 나타나는 주택, 상업 시설, 인프라 수요가 뒷받침되어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
-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격한 건설수주 감소, 인력수급 부족 등의 문제로 2000년대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수요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지출 계획에 힘입어 전년대비 11.2% 증가한 3,617억불을 기록할 전망

<표> 인도네시아 건설사업 규모 및 성장률

(단위: 조 루피아)

년도	건설산업 규모	2010
2017	Rp 1,410.51조	6.80%
2018	Rp 1,562.30조	6.09%
2019	Rp 1,701.74조	5.74%
2020	Rp 1,652.66조	-3.26%
2021	Rp 1,771.73조	2.81%

출처: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 ◆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은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무역, 광업 등 수출 중심의 산업과는 다르게 내수 비중이 95% 이상이며, 5% 비중은 해외로 건설 전문 인력 파견 부문이 특징
- ◆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의 건설산업 발전 기여도는 약 7%로 세계4위 기록

<표> 2021년 글로벌 건설산업 발전 기여도 주요 5개국

번호	국가	글로벌 산업기업 기여도
1	중국	26.1%
2	인도	14.11%
3	미국	11.1%
4	인도네시아	7.2%
5	호주	2.3%
6	기타 국가	39.2%
7	합계	100%

출처: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많은 건설 프로젝트 시행 및 완료예정으로 2024년에는 글로벌 산업 기여도가 약 9%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
-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1위 규모의 건설시장 보유
-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의 건설산업 시장 중 약 32%로 1위 규모이며, 이는 5~10위 6개 국가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

〈표〉 아세안 10대 건설산업 시장 보유 국가

번호	국가	아세안 10개국 건설산업 시장 규모
1	인도네시아	31.8%
2	말레이시아	17.1%
3	베트남	16.7%
4	태국	10.3%
5	필리핀	7.1%
6	싱가포르	6.3%
7	미얀마	3.6%
8	캄보디아	3.1%
9	라오니	2.7%
10	브루나이	1.3%
11	합계	100%

출처: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 ◆ 인도네시아는 넓은 영토, 인구, 도시화, 산업단지, 자원 개발 분야 등 건설산업의 발전 요소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 대비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앞으로도 아세안 건설산업 1위 국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조코 위도도 정부 출범 시 발표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이니셔티브(NSP)를 중심으로 교통과 발전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될 전망
 - 교통 부문은 2021년 9.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로 및 교량, 철도, 공항을 중심으로 2021~2029년까지 연평균 6.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부 부문별로는 도로가 2021년 1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2029년까지 연평균 7.9% 성장할 전망
 - 도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인프라 부문은 철도로 내륙지역의 물류 향상과 도심간 승객 이동 향상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이 활발히 참여 중
 - 발전 부문의 경우, 2021년 5.2% 성장할 예상이며, 2021~2029년까지 연평균 5.2% 성장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접근성 향상 및 발전 용량 증대를 위해 35,000MW 프로그램을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중순까지 10%만 완료된 상태

- 지역별 건설 프로젝트 190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22개로 총 212개 프로젝트 시행

〈표〉 인도네시아 지역별 건설 프로젝트 현황

번호	지역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규모
1	자바	84개	1,997.3조 루피아 (약 175조 원)
2	수마트라	44개	778.3조 루피아 (약 70조 원)
3	술라웨시	22개	276.9조 루피아 (약 24조 원)
4	칼리만탄	16개	506조 루피아 (약 45조 원)
5	발리 및 누사 툽가라	12개	71.8조 루피아 (약 6.5조 원)
6	말루쿠, 파푸아	10개	566.5조 루피아 (약 51조 원)
7	전국, 국가 프로젝트 (신수도 이전 등)	22개	1,543.3조 루피아 (약 140조 원)
8	합계	212개	5,739.7조 루피아 (약 515조 원)

출처: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 보르네오(Borneo)섬에 위치한 동부 칼리만탄(East Kalimantan) 지역 내 4만 헥타르(400km²) 부지에 신행정수도 개발을 추진 중
 - 동부 칼리만탄은 석탄, 석유가스, 목재, 팜 오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화산폭발,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자카르타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인근의 위성도시까지 포함하면 3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나친 지하수 개발 등으로 2050년경에는 자카르타 면적의 36%가 해수면 아래에 잠길 것으로 전망
- 교통정보분석회사인 인릭스(INRIX)는 2017년 자카르타의 혼잡도를 세계 12위로 평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7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자카르타에서 약 1,169km 거리에 위치할 동 신행정수도는 2020년 연내에 마스터플랜 및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 법 개정 및 프로젝트 입찰 준비를 마치고, 2021년에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할 계획
 - 이어 2022년 착공 후, 2024년에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이전을 시작할 목표로, 이후 2045년까지 개발 면적을 20만 헥타르로 확대, 궁극적으로 광역 도시(메트로폴리탄)를 구축할 계획.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됨¹⁾

1)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2)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p2

- 전체 사업규모는 약 330억불로 추정되며, 19%는 정부예산으로, 26%는 국영 및 민간직접 투자로 그리고 나머지 55%는 PPP방식으로 추진될 예상
- 정부는 기본인프라 토지구매를, 국영회사는 공항, 항만 개발을, 민간은 공공주택, 상업시설, 공원 조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한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교육과 보건 관련 공공 인프라 시설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12위 교역상대국인 주요한 시장 중 하나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도시문제 완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개발의 필요성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노하우 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도시 문제 해소와 더불어 보 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지역으로의 행정수도이전도 발표된 바, 이에 따른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마카사르, 바뉴왕기 3개 도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2018~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글로벌ICT포털, 2020)
- 우리 건설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실적을 보면, 산업설비, 토목, 건축 순으로 수주하였으며, 세부 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공종별 진출현황

(단위: 백만불)

공종/연도		2000	2010	2020	누계 (1965~2020)
토목		9,374	133,201	43,154	3,516,556
	단지조성 (도시개발)	-	-	-	587,381
건축		-	-12,141	239,827	3,248,005
산업설비		66,180	196,588	434,958	14,060,760
전기		-	-	-2,110	99,055
통신		6,496	42	1,914	121,037
용역		1,824	2,061	9,805	893,739
	도시개발	-	-	-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3) 도시개발 동향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은 2000년 42%, 2010년 51% 그리고 2017년 55%를 기록하였으며, 2035년에는 68%, 2045년에는 82%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도시화율의 확대는 인적자본과 소비 증가의 이점이 있으나, 교통체증(세계 10위), 대기오염, 폐처리 문제, 토지 황폐화, 범죄율 증가, 불평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시켜 삶의 질 하락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인도네시아 역시, 증가하는 도시화율로 인해 빈민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 정체, 에너지 소비 급증 등의 삶의 질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1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2016년의 인구 밀도는 14,464명/km² 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데,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 최적화, 주요 제한적 자원(에너지, 물, 공간 등)의 효율적 관리, 공공관계 증진 등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
 - 성공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기 위해 2017년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주도 아래 내무부, 공공주택사업부,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대통령실 등과 함께 시범 프로젝트로 100대 도시 추진 방안(Movement Toward 100 Smart Cities)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곧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의 근간이 됨
- 도시화, 국민소득 및 중상층 증가로 주거용 주택 수요가 늘어나 주택 건설시장도 활성화되는 추세로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 수요증가에 따른 대도시를 중심의 민간주택 건설 프로젝트도 늘어나는 추세

4)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인도네시아는 22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를 통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별 중점분야는 아래와 같음

〈표〉 주요 도시별 중점분야

주요 도시	중점분야
Tangerang	Smart Government
Bandung	Smart Government, Smart Economy
Banyuwangi	Smart Government
Siak	Smart People
Pelalawan	Smart Government
Banyuasin	Smart Government
Jambi	Smart Living, Smart Government
Tangerang	Smart Government
Bekasi	Smart Living
Bogor	Smart People
Sukabumi	Smart Economy
Cirebon	Smart People, Smart Government
Semarang	Smart Government
Sleman	Smart Government
Bojonegoro	Smart People
Sidoarjo	Smart Environment, Smart Government, Smart People
Gresik	Smart People
Banyuwangi	Smart Government
Lombok, Timur, Badung	Smart Economy
Kutai Kartanegara	Smart Economy
Samarinda	Smart Economy
Tomohon	Smart Government
Makasar	Smart People
Mimika	Smart Mobility

□ Makassar

- Makassar은 술라웨시(Sulawesi) 섬의 가장 큰 도시로, 약 133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내 10번째로 큰 도시이며,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
 -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지이자 첨단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허브도시이기도 한 마카사르는 e-office를 통해 행정 및 업무소통 간소화를, e-kelurahan을 통해 공공데이터 통합 및 관리를, e-puskesmas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모니터링을, Makassar Tidak Rantasa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추진 중
 - 또한 국영 통신회사인 Telkom(PT Telekomunikasi Indonesia)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추진 중으로, 정보기술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Medan

- Medan 시는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Belawan 항과 kualanamu 국제공항을 통해 서부 지역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역과 비즈니스가 매우 발달해 있음
 - 도시 면적은 265.10km² 이며,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230만명으로 높은 인구밀도(8,409명/km²)를 보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2017년 웹사이트 개발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와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 중
 - 또한 67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Medan Rumah Kit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내의 문제점(파손된 도로, 불법주차 등)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음

□ Samarinda

- 현 수도 자카르타는 매년 10~20cm 가량 침수되고 있으며, 과밀화에 따른 교통체증과 식수가 고갈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 중이며 인도네시아 국토의 6.7%에 해당하는 자바섬에 인구 56.6%와 GDP 58.5%가 집중되는 등 불균형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
- 이외에도 빈번한 지진발생과 지하수를 과다 사용하여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 과다사용에 따른 지반침하하는 연 7~25cm씩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자카르타 전역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로 보르네오 섬을 발표
 - 사마린다(Samarinda)와 발릭파판(Balikpapan) 사이에 위치할 동 수도를 위해 약 330억불의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의회 승인을 득할 시, 이르면 내년에 착공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 2024년 경 새로운 행정 수도로 이전을 실시할 계획
 - 개략적인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조코위 대통령은 연임 이후 2019년 4월에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Pre-Masterplan 수립 용역을 McKinsey Indonesia와 시행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역시 동 사가 작년 6월부터 실시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 수도이전 법을 제정하고 전담부처를 신설 후,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 1단계 개발을 통한 정부핵심 기능 이전, 2030년까지 2단계 개발을 통한 주변 위성도시 개발, 그리고 2045년까지 3단계 개발을 통한 수도권 광역개발을 완료할 계획
 -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따라, 예산이 질병 퇴치를 위해 전용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기준, ‘신수도법’이 국회에 미제출되는 등,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수도이전 전담부처 역시,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신설이 지연되고 있음



<그림> 인도네시아 신수도 위치도




출처: <https://futuresoutheastasia.com/>

<그림> 인도네시아 신수도 상상도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한국

- 의 지능형 도시경험과 우리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형-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021년 6.23일에 11건의 사업을 선정함
- 이 중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타당성조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신수도 관련 사업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

〈표〉 인도네시아 신수도 지역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타당성조사 개요

인도네시아 신수도 지역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 사업위치 : 동 칼리만탄 • 주요내용 : 정부기관 이전시 가장 시급한 공무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단지 계획 수립 	

출처: 국토교통부

□ Bandung

- Bandung은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온라인 정부 서비스, 공공 와이파이, 빠른 인터넷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음
- EIU에 따르면 반둥은 3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중 E-Budgeting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예산 집행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5개의 민간은행과 협업하여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도입, 교육비 납부, 전자 주차, 대중교통 이용료 결제 등의 거래를 한 개의 카드로 가능케 함
- 또한 ‘Bandung Command Center’라는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 관련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가능토록 간소화시켰으며, 반둥 테크노폴리스(Bandung Technopolis)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멘토링 프로그램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연구와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특히, 인도네시아 최대 기술대학인 반둥공과대학(BIT) 등 5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상주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성장 축진이 기대됨

□ Bog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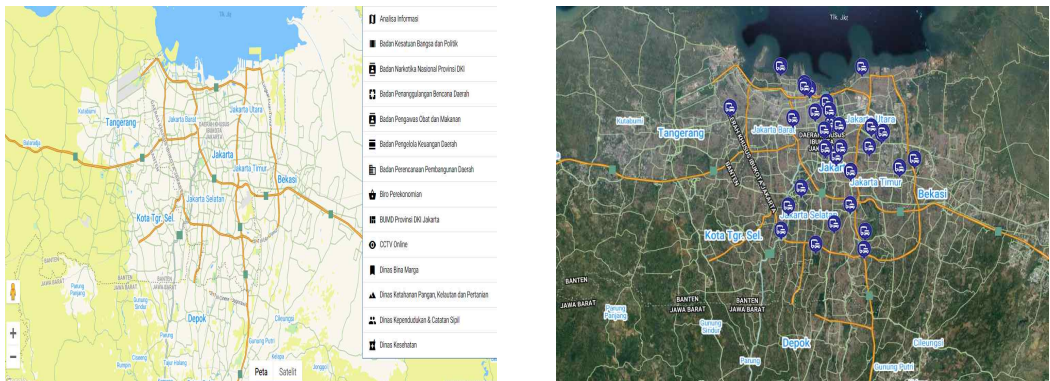
- Bogor은 온라인 세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 세금 납부를 가능케 하였으며, 현재 페이퍼리스(Paperless)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
- Bogor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시티 사업인 Lido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3,000헥타르 부지에 6성 호텔, 200가구의 빌라, 테마공원, 상업시설, 골프장 등을 건설하게 됨
- 프로젝트 규모는 15억불로, PT MNC Land Tbk의 자회사인 PT Lido Nirwana Parahyangan(LNP)는 2025년 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LNP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함



<그림> 인도네시아 Lido 스마트시티 조감도

□ Jakarta

- 자카르타는 4년 전부터 JSC(Jakarta Smart City)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BeRiDE 등을 비롯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보완하고 있으며, 7,300개의 CCTV를 도입하여, 범죄, 교통체증, 홍수 그리고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컨설팅 회사인 Eden Strategy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개 스마트시티 중 자카르타가 47위를 차지하는 등, 아직도 발전해야할 부문이 많음
- 참고로 동 보고서는 스마트시티를 디지털 기술 부문과 시민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지식 부문,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부문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런던, 싱가포르, 서울, 뉴욕 그리고 헬싱키가 상위 5개 도시로 선정된 바 있음



출처: Jakarta Smart City Portal

<그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포털

5) 스마트시티 도입 수요

-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12위 교역상대국으로, 주요한 시장 중 하나로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도시문제 완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스마트시티 100개 도시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노하우 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LH, 2021)
- 이에 따라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이전을 발표한 바, 이에 따른 대규모의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마카사르, 바누왕기 3개 도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2018~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글로벌ICT포털, 2020)

6) 주요기관 스마트시티 참여 사례

<표> 주요개발협력기관의 인도네시아 내 스마트시티 조성 참여 사례

사업명	주요 내용
텐파사르 스마트물관리 시범사업	KOICA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1~2025년 52.36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네시아의 텐파사르 지역에 대한 수자원을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
기획재정부-국가개발기획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부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기획재정부-국가개발기획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관련 MOU 체결('20.1.13)에 따라 신수도 건설 관련 기획·계획수립 등 매년 5개 내외 과제 지원(연 20억 수준) EIPP사업의 주요 과업은 신수도 개발 종합 계획, 수도 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제 개발 전략 수립, 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 신수도 에너지 전환 마스터플랜 및 에코 스마트 시티를 위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음



출처: POSCO E&C
[그림 16] 리도(Lido) 신도시 조감도



출처: Indonesia Expat
[그림 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예시)

〈표〉 우리나라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사례

사업명	주요 내용
리도(Lido)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PT POSCO E&C Indonesia / MNC Group 서부 자바주(州) 보고르 인근 지역에 MNC그룹이 보유한 부지 300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포스코건설은 1단계 사업으로 부지 200만㎡에 공사비 약 1350억 원을 투입할 예정
자카르타 LRT 사업	철도시설공단 / 인도네시아 JAKPRO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공공주택 17만 가구 건설 사업	한화 건설 / 인도네시아 PT.PP(Persero) Tbk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카리안(Karian) 광역상수도 사 업 MOU	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 인니 수자원청·주거개발청 카리안댐을 수원으로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땅그랑시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실시 예정인 사업 수자원공사는 2004년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자바섬 반덴주 카리안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160억원 규모(13건)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정부행정구역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에 위치한 기존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COVID-19로 인해 수도 이전사업은 연기되었으나 올해 말에는 다시 재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린, 스마트,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우리나라의 경우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12개 사업 중 도시개발형 사업의 하나로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정부행정구역(동 칼리만탄 지역)에 스마트 교통, 폐기물, 물관리 등 3개 부문별 기본구상 수립